

고대 부산지역사 연구현황과 과제

유 우 창

(가야대학교 강사)

目 次

- I. 머리말 - 고대 부산지역사 연구동향 개관
- II. 삼한시대 '독로국'의 위치비정
- III. 삼국시대 '부산지역 정치체'의
신라병합시기
- IV. 맺음말 - 향후 연구의 과제

I. 머리말 - 고대 부산지역사 연구동향 개관

부산지역의 역사적 발전 추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삼한시대¹⁾에는 ‘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 : 이하 ‘독로국’²⁾)으로 약칭함) 또는 ‘거칠산국(居柒山國=菴山國·萊山國)’으로 존재하였다가, 그 후 신라에게 병합되어 삼국시대에는 ‘거칠산군(居柒山郡)’으로 재편되었고, 7세기 중반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사회전반을 통합·안정시켜 완숙한 경지에 도달한 무렵인 8세기 중반 ‘동래군(東萊郡)’으로 개명되기에 이르렀다.³⁾ 그 후에도 ‘동래’라는 명칭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고려시대를 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동래’는 일제강점기 이후 ‘부산부제(釜山府制)’가 실시됨에 따라 ‘부산부’에 그 일부가 편입되었고,⁴⁾ 그렇게 통합된 부산지역은 이후 ‘부산직할시’

1) 문헌적 측면에서 ‘삼한시대’는 일반적으로 1~3세기를 지칭하는 용어다(백승충,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정치집단과 그 성격-弁辰瀆盧國을 중심으로-」 『港都釜山』 18, 부산,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2, p.3 주 1 참조).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일컬을 때, ‘삼한시대’ 외에도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전기’ 등 서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白承玉, 『加耶 各國史 研究』, 서울, 해안, 2003, pp.50-51 참조). 그 중에서도 특히 ‘삼한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용어가 지금도 양립하고 있는 형편이다. 두 용어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세히 검토할 여유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일단 ‘삼한시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瀆盧國’을 읽을 때, 후술하겠지만 ‘瀆盧國=東萊說’의 입장에서는 ‘독로국’으로, ‘瀆盧國=巨濟島說’의 입장에서는 ‘두로국’으로 읽고 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독로국’ 혹은 ‘두로국’으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옳겠지만, 여기서는 부득이하게 구별하여 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로국’으로 통일하였음을 밝혀둔다.

3)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景德王 16년(757)조와 『三國史記』 권34 雜志3 地理 1 東萊郡條 참조.

4) 丁仲煥, 「瀆盧國考」 『白山學報』 8, 서울, 白山學會, 1970 ; 『加羅史研究』, 서울,

를 거쳐 1995년 ‘부산광역시’로 확대·개편되어⁵⁾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고대 부산지역사의 시간적 범주는 삼한시대 ‘독로국’ 또는 ‘거칠산국’으로부터 삼국시대 ‘거칠산군’까지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대 시기는 한국사 전반에 걸쳐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부산지역은 이 점에서 한층 더 심한 편이다. 가령 후술할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논란중인 ‘독로국’의 위치를 부산지역에 비정(比定)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기록으로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변진조(弁辰條)에 보이는 몇 개 기사, 『삼국사기』 초기기록으로 간주되는 열전 거도전(居道傳), 『삼국사기』 지리지 동래군조(東萊郡條), 『삼국유사』 탑상(塔像) 영취사조(靈鷲寺條), 그리고 보다 후대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을 포함한 몇몇 지리서에 언급된 약간의 기사들, 그 외 『일본서기』 신공기(神功紀) 및 계체기(繼體紀)에 출현하는 ‘다다라(多多羅=踏鞴津)’ 관련 기사들 정도인데, 고대 부산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은 이것들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적 측면에서 고대 부산지역사를 밝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성과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음도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덕분에 고대 부산지역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고대 부산지역사를 다루었던 연구성과들을 개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해안, 2000, p.316. 金廷鶴, 『韓國上古史研究』, 서울, 범우사, 1990, p.211.

5) 金琪燮, 「機張郡의 歷史와 文化遺産」 『韓國民族文化』8, 부산,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1996, pp.1-2.

우선 ‘부산시’ 당국에서 편찬한 통사료를 꼽을 수 있는데,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순으로 나열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5년 ‘부산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釜山略史』를 편찬하였다. 『부산약사』는 그 재판(1968년)의 서문에서 기대한 바와 같이, 그 후 이 지역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연구가’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당시까지 고대 부산지역사의 연구진척도는 문헌적 측면이든 고고학적 측면이든 매우 일천했기 때문에, 이후 연구와 같이 다양한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아쉽게도 전체 394쪽 가운데 고대이전부분은 겨우 23쪽의 분량밖에 신지 못했다.

1978년 ‘부산시’는 『부산의 역사』를 편찬하였다. 전체분량면에서 고대이전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의 『부산약사』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제법 흘렀기 때문에 그 때까지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즉 『부산약사』에서 미처 언급되지 못했던 ‘독로국=동래설’이 새로 추가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특기할 점은 고대를 ‘가야시대’ 및 ‘신라시대’로 나누어 설정하고 서술하였는데, 이는 고대 ‘부산지역’이 가지는 역사적·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11년이 지난 1989년, 『釜山市史』가 편찬되었다. 역사학 외에도 학문의 다방면에서 취합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분량면에서 매우 방대한데, 그런 만큼 고대 부산지역사를 다루는 데에서도 이전의 편찬서에 비하여 더욱 심화되고 밀도 있게 서술되었다. 고대 부분을 집필한 연구자는 정중환이었는데,⁶⁾ 그는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에 걸친 한국사 전반을 개

6) 丁仲煥, 「삼한시대의 부산」·「삼국시대의 부산」 『釜山市史』1, 부산, 釜山直轄市史

괄한 다음, 따로 자신의 연구성과를 적절히 정리하여, 비교적 쉽게 고대 부산지역사를 서술하였다.

이상에서 ‘부산시’에서 편찬한 성과물⁷⁾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편찬서는 이후 부산지역사를 연구하는데 밑거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 연구사적 의의는 더할 나위 없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개별 연구성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헌적 측면에서 고대 부산지역사로의 접근은 사료의 영세성 때문에 매우 많은 제약을 받는다. 때문에 ‘근대역사학’의 성립 후에도 이 부분의 연구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단편적으로나마 고대 부산지역사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기록된 ‘독로국’의 위치를 지금의 부산지역인 동래지역에 비정한 연구가 나오면서부터였다.⁸⁾ 그 후 부산지역사의 연구는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진척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고대 부산지역사의 연구는 대부분 ‘독로국=동래설’에 입각한 것이었다. 즉 ‘독로국’의 위치는 부산 ‘동래’였다는 것인데, 이를 전제로 한 종래의 연구성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로국’의 위치비정 연구에 앞서 가장 시급히 대두된 것은 뒤에 제시한 사료 A-②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독로국’이 ‘왜와 경계를 접하였다(與倭接界)’는 구절의 해석문제였다. 왜

編纂委員會, 1989, pp.436-459 pp.459-488 참조.

7) 물론 이외에도 『釜山市誌』 등 ‘부산시’가 편찬한 통사류는 더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성과물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생략하였다.

8) 吉田東伍, 『日韓古史斷』(復刻版), 東京, 富山房, 1977. 이후 대부분의 후속 연구자들도 ‘독로국’의 위치비정문제를 다루고 있다.

냐하면 일찍부터 일본인 연구자들이 이 구절을 이용하여 한국사를 왜곡하여 해석했기 때문이다.⁹⁾ 한국인 연구자들로서는 이 구절의 올바른 해석이야말로 우선적으로 헤명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의 올바른 해석은 ‘독로국’의 위치비정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문제기도 하였다. 이 문제에 몰두한 연구자로는 정중환, 천관우, 김정학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삼국지』, 『삼국사기』, 『일본서기』, 「광개토왕릉비문」 등 다양한 기록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인 연구자들의 왜곡된 해석을 바로잡고 마침내 ‘독로국’이 왜와 육지로 접한 것이 아니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접하였음을 밝혔다.¹⁰⁾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독로국의 대외관계’를 고찰한 연구가 발표되었다.¹¹⁾ 이에 따르면 동래지역의 ‘독로국’은 유리한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철을 매개로 ‘낙랑’·‘대방’ 등 한군현(漢郡縣) 및 왜의 정치세력과 교섭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당시 가야의 유력한 정치세력이었던 ‘구야국(狗邪國)’에 버금가는 정치적 위상을 누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부산지역에는 ‘거칠산국’이 있었다. 그러므로 종래 연구에서는 거의 모두 ‘거칠산국’의 명칭유래를 밝히고자 하였다.¹²⁾ ‘거칠산국’의 명칭유래는 대개 지금 부산

9)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增訂版), 東京, 吉川弘文館, 1956, p.66.

10) 丁仲煥, 『앞의 책』, 2000, p.310. 千寬宇, 「辰·弁韓 諸國의 位置 試論」 『白山學報』20, 서울, 白山學會, 1976 ; 『加耶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1, p.67. 金廷鶴, 『앞의 책』, 1990, pp.211-213.

11) 백승충, 「앞의 논문」, 2002, p.43 및 pp.59-62. 허재혁,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港都釜山』18, 부산,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2, pp.177-183. 선석열, 「가야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港都釜山』18, 부산,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2, pp.299-311.

12) 釜山市史編纂委員會, 『釜山略史』, 부산, 嶺南印刷所, 1965, p.22. 鄭澄

중앙부에 위치한 ‘황령산(荒嶺山)’에서 구하고 있다. 즉 ‘황령산’을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칠피’라고 할 수 있으므로 ‘거칠산국’의 명칭유래를 ‘황령산’에서 찾은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삼국사기』 거칠부전(居柒夫傳)을 참고하기도 하고, 제사관련 기사¹³⁾를 참고하기도 하였다. ‘거칠부’의 다른 이름을 ‘황종(荒宗)’이라 한 음운학적 방증과 ‘형변(兄邊=거칠산군)’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면 ‘거칠산국’의 명칭이 ‘황령산’에서 유래했다는 점은 거의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는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래’의 명칭유래 또한 연구대상이었다. ‘동래’의 명칭유래는 ‘독로’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대세인데, 결국 ‘독로국=동래설’을 주장하거나 지지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¹⁴⁾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그 외 ‘독로국’의 경역(境域), 국읍(國邑=治所)을 다루거나 ‘독로국’의 국읍과 읍락(邑落) 및 촌락과의 관계 등을 고찰한 연구가 있었다.¹⁵⁾ 이 연구들은 『삼국사기』 지리지 동래군조의

源,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부산의 역사』, 부산, 부산시, 1978, p.17. 丁仲煥, 「삼국시대의 부산」 『釜山市史』1, 부산,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1989, p.468. 金廷鶴, 『앞의 책』, 1990, p.211. 金琪燮, 「앞의 논문」, 1996, p.3. 이원균, 『부산의 역사-선사시대에서 개항전까지-』, 부산, 늘함께, 2000, p.37. 백승충, 「앞의 논문」, 2002, p.29.

13) 『三國史記』 권32 雜志1 祭祀 中祀條.

14) 李丙燾, 「三韓問題의 新考察-辰國及三韓考」 『震檀學報』7, 京城, 震檀學會, 1937, p.141. 丁仲煥, 『앞의 책』, 2000, p.320. 千寬宇, 『앞의 책』, 1991, p.67. 金廷鶴, 『任那と日本』(『日本の歴史』別卷1), 東京, 小學館, 1977, p.36 ; 『앞의 책』, 1990, p.211. 鄭澄源, 「앞의 논문」, 1978, pp.17-18. 선석열, 「앞의 논문」, 2002, p.290. 鄭容淑, 「新羅·高麗時代 지방제도의 정비와 機張」 『韓國民族文化』8, 부산,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1996, pp.36-37.

15) 백승충, 「앞의 논문」, 2002, pp.49-58. 선석열, 「위의 논문」, p.299.

기사를 중심으로 삼고, 복천동고분군¹⁶⁾으로 대표되는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원용하여 독로국의 경역을 온천천 수계의 국읍을 중심으로 교통로를 따라 사방 여러 지역의 읍락·촌 등, 즉 지금의 부산지역 대부분을 포괄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독로국(=거칠산국)의 영현(領縣)이었던 ‘대증현(大甌縣)’¹⁷⁾과 ‘기장현(機張縣)’¹⁸⁾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가 있었다. 역시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원용하였다. ‘대증현’의 경우 그 현치(縣治)를 대개 지금의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초읍동 일대로 보는 설도 있었다고 한다.¹⁹⁾ ‘기장현’의 경우 지금의 부산 기장군을 가리키는데, 양산군 기장읍이 부산으로 편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²⁰⁾

이상에서 고대 부산지역사의 연구경향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는데,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삼한시대 ‘독로국의 위

16) ‘독로국’은 3세기 이전의 국명이고 ‘복천동고분군’은 4세기대 이후의 것으로 편년하고 있으므로 ‘독로국’과 ‘복천동고분군’을 연결시키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견해(沈奉謹, 「巨濟 古縣城址 研究」『石堂論叢』17, 부산,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研究院, 1991, pp.32-33의 주 67)가 있다. 그러나 ‘복천동고분군’ 조영집단은 그 이전 시기 이 지역에 존재했었던 집단, 즉 ‘동래패총’을 남긴 집단 및 ‘복산동고분군’ 조영집단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백승충, 「위의 논문」, p.51)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17) 釜山市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65, pp.23-24. 丁仲煥, 『앞의 책』, 2000, pp.315-316. 鄭澄源, 「앞의 논문」, 1978, pp.18-19. 이원균, 『앞의 책』, 2000, pp.45-46. 백승충, 「앞의 논문」, 2002, pp.32-33. 정용숙,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행정조직과 통치구조」『港都釜山』19, 부산,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3, p.11.

18) 鄭澄源, 「위의 논문」, p.18. 백승충, 「위의 논문」 p.35.

19) 釜山市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65, p.23.

20) 金琪燮, 「앞의 논문」, 1996, pp.1-32. 鄭容淑, 「앞의 논문」, 1996, pp.32-75. 이종봉, 「삼한·삼국·통일신라시대의 기장」『機張郡誌 (上)』, 기장군지 편찬위원회, 2001, pp.187-211.

치비정'과 '부산지역 정치체의 신라편입 시기'가 쟁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대 부산지역사 연구 중에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삼한시대 '독로국'의 연구현황을 정리해 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19세기 이래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독로국의 위치비정'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부산지역 정치체의 신라편입 시기'를 검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에서 파생되어 온 과제와 향후 고대 부산지역사 연구의 전망을 결론삼아 서술하고자 한다.

II. 삼한시대 '독로국'의 위치비정

'독로국의 위치비정' 문제는 최근까지도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숙제다. 지금까지 논의에 의하면 '독로국'으로 비정되는 지역으로는 크게 지금의 경남 거제도, 부산 다대포, 부산 동래구 등 세 가지 설로 나누어져 있다.²¹⁾ 그러나 그 중에서 다대포설²²⁾은 이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21) 백승충,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정치집단과 그 성격-弁辰瀆盧國을 중심으로-」 『港都釜山』18, 부산,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2, pp.16-18. 그 외에도 '瀆盧'를 '瀆羅'로 치환한 다음 이를 '多羅加耶'로 보고 이를 오늘날 함천으로 비정하거나, 『鼎立考』에 근거하여 '瀆盧國=喙國'일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吉田東伍, 『日韓古史斷』(復刻版), 東京, 富山房, 1977, pp.142-144)와 임나일본부설에 입각해서, '瀆盧'는 일찍부터 왜의 직할령이었을 '哆唎(上哆唎: 晋州, 下哆唎: 熊川)'로 추정한 견해도 있지만(今西龍, 「加羅疆域考」 『朝鮮古史の研究』, 京城, 近澤書店, 1937, p.345), 지금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거제도설과 동래설이 여전히 유력한 가운데 쟁점이 되고 있다. 즉 거제도설 및 동래설은 각각의 논의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녔기 때문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어쩌면 이와 같은 불합치는 당연하다고도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사료의 제약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이 방면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했기 때문일 것이다.

‘독로국’ 관련 기록은 우리 사서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중국측 사서인 『삼국지』에 단편적인 기사가 실려 있을 뿐이다.²³⁾ 그러므로 독로국의 실체에 접근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삼국지』에 기록된 ‘독로국’ 관계 기사를 제시해 보고 선행 연구자들의 위치비정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A-① 변진(弁辰)도 12개 나라로 되어 있다. 또 여러 작은 별읍(別邑)이 있어서 제각기 거수(渠帥)가 있다. … 이저국(已柢國)·불사국(不斯國)·변진미리미동국(弁辰彌離彌凍國)·변진접도국(弁辰接塗國)·근기국(勤耆國)·난미리미동국(難彌離彌凍國)·변진고자미동국(弁辰古資彌凍國)·변진고순시국(弁辰古淳是國)·염해국(冉奚國)·변진반로국(弁辰半路國)·변낙노국(弁樂奴國)·군미국(軍彌國)·변진미오야마국(弁

22) 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라 엄밀히 말하자면 ‘다대포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행정구역에 따라, 넓게 보면 다대포는 ‘동래부(東萊府)’의 관할 하에 있었으므로, ‘다대포설’을 ‘동래설’에 포함시켜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23) 물론 『삼국지』에 언급되고 있는 몇몇 국명인 不斯國, 弁辰狗邪國, 弁辰安邪國, 斯盧國 등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比斯伐, 加耶, 安羅 등과 같이 그 음이 비슷하거나 혹은 斯盧國과 같이 동일한 국명이 등장한다. 그러나 瀆盧國을 비롯하여 위서 동이전에 언급되는 대부분의 소국명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음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국명이 보이지 않는다.

辰彌烏邪馬國)·여담국(如湛國)·변진감로국(弁辰甘路國)·호로국(戶路國)·주신국(州鮮國)·변진구야국(弁辰狗邪國)·변진주조마국(弁辰走漕馬國)·변진안야국(弁辰安邪國)·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사로국(斯盧國)·우유국(優由國)이 있어서, 변진한(弁辰韓)은 모두 24나라다. 큰 나라는 4~5천 가(家)고, 작은 나라는 6~7백 가로, 총 4~5만 호(戶)다.²⁴⁾

A-② 그 독로국(瀆盧國)은 왜(倭)와 경계를 접한다.²⁵⁾

A-③ 왜인(倭人)은 대방(帶方)의 동남쪽 큰 바다 가운데 있다. ... 군에서 왜에 이르는 데에는, 해안(海岸)을 돌아 물길로 나아가서 한국(韓國)을 지난다. 조금 남쪽으로 갔다가 조금 동쪽으로 가면, 그 북안(北岸)인 구야한국(狗邪韓國)에 도달하는데, 7천여 리 길이다. 비로소 바다 하나를 건너 천여 리 더 가면, 대마국(對馬國)에 이른다.²⁶⁾

위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국지』의 ‘독로국’ 관련기사는 매우 소략하여 단 두 개의 기록만 실고 있을 뿐이다. 하나는 변진한을 구성하고 있는 국명들의 나열 중에 ‘변진독로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A-①), 또 다른 하나는 ‘독로국’이 왜와 경계를 접하고 있음(A-②)을 보여주고 있다. A-①에서 ‘독로국’은 ‘변진’을 관칭(冠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변한(가야)계의 한 소국’임을 알 수 있다.²⁷⁾ 그리고 A-②는 가야계 소

24) 『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韓條.

25) 『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韓條.

26) 『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倭人條.

27) 백승충, 「앞의 논문」, 2002, p.13. 한편, 변한이 곧 가야로 연결된다는 인식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독로국’을 바로 가야의 일국으로 단정해서는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다(朱甫暉, 「4~5세기 釜山地域의 政治的 方向」 『가야사 복원을 위한 북천동고분군의 재조명』, 제1회 부산광역시립북천박물관 학술발표대회, 부산광역시립북천박물관, 1997, p.77).

국인 ‘독로국’이 지리적으로 왜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독로국’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²⁸⁾ 다만, A-②를 통하여 그 대강의 입지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연구의 관심을 ‘독로국’에 한정한다면 A-①보다는 A-②의 사료적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왜냐하면 ‘독로국의 위치비정’에 그나마 약간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²⁹⁾ 이와 같은 정황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위의 사료를 이용하여 연구된 ‘독로국의 위치비정’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1. 독로국=거제도설

‘독로국’의 위치비정에 대하여 가장 먼저 언급한 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세기 조선의 대학자였던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었다. 그는 A-②를 분석하면서 『강역고』 삼한총고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

“용(鏞 : 정약용)이 생각건대, 瀆盧國은 지금의 거제부(巨濟府)다[본래 상군(裳郡)이다. 방언(方言)에서 상(裳)을 두루기(斗婁技)라고 하는데, 瀆盧와 소리가 가깝다].”³⁰⁾

28) 이와 같이 기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고고학적 연구성과의 원용이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작용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급적 고고학적 연구성과의 언급은 지양하고 문헌적 측면에서의 연구성과만을 다룰 것이다.

29) 물론 A-①의 경우도, 일찍이 천관우가 국명열거 순서에 법칙성이 있었을 것임을 상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千寬宇, 「辰·弁韓 諸國의 位置 試論」 『白山學報』 20, 서울, 白山學會, 1976 ; 『加耶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1, pp.60-66), 독로국의 위치비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독로국은 안야국(함안)과 사로국(경주) 사이에 위치한다.

30) 『疆域考』 권1 三韓總考, “鏞案 瀆盧國者 今之巨濟府也[本裳郡 方言裳曰斗婁技

정약용은 위와 같이 ‘독로국’을 거제도에 비정하였다.³¹⁾ 그가 이와 같이 생각한 이유는 주석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거제도의 본래 명칭이 ‘상군’이었음에 주목한 것이다. ‘상군’은 『삼국사기』 지리지 거제군조에 언급되어 있는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B-① 거제군(巨濟郡)은 문무왕(文武王)이 처음으로 상군(裳郡)을 설치하였는데, 바다 가운데 섬이다.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도 그에 따른다. 영현(領縣)이 셋이다. 아주현(鵝洲縣)은 본래 거로현(巨老縣)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도 그에 따른다. 명진현(溟珍縣)은 본래 매진이현(買珍伊縣)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도 그에 따른다. 남수현(南垂縣)은 본래 송변현(松邊縣)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은 예전대로 일컫는다.³²⁾

정약용은 A-②에 보이는 ‘독로국’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하여 B-① 기사를 보고, ‘상군’에서 커다란 힌트를 얻은 듯하다. ‘상’자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 의미는 ‘치마’를 뜻한다. 정약용이 왜 ‘상’을 우리말에서 ‘두루기’라고 한다고 했는지 그 까닭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치마는 ‘둘러 입기’ 때문에 ‘두루기’라고 한 것 같다. 어쨌든, 이와 같은 생각에 도달한 정약용은 ‘瀆’자를 ‘두’로도 읽을 수 있으므로,³³⁾ 결국 ‘瀆盧’를 ‘독로’라 읽지 않고, ‘두로’라고 읽

與瀆盧聲近.]”

31) 또한 정약용은 『疆域考』 권1 弁辰考에서 “魏書에서 이르기를, ‘그 瀆盧國은 倭와 경계를 접하였다. …’고 한다. 鏞이 생각건대, 瀆盧는 巨濟다(魏書云 其瀆盧國與倭接界 … 鏞案 瀆盧者 巨濟也).”고 하여 자신의 주장을 재삼 강조하였다.

32) 『三國史記』 권34 雜志3 地理1 巨濟郡條.

은 것 같다. 즉 두루기(裳)와 두로(瀆盧) 사이의 음상사(音相似)를 가지고 ‘독로국=거제도설’을 제창한 셈이다.

정약용은 위와 같이 ‘두루기’와 ‘두로’의 음상사를 전제한 다음, 『강역고』 변진별고에서 거제도의 지리적 위치를 이용하여 ‘독로국=거제도’임을 거듭 논증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瀆盧는 거제다[이미 앞에 보였다]. … 瀆盧가 남쪽으로 왜와 접하고 있었으므로 아마도 다른 고을이 아닐 것이다[거제에 가라산(加羅山)이 있는데, 여람(輿覽)에서 이르기를, ‘대마도를 바라보기에 가장 가깝다’고 했다].”³⁴⁾

앞의 삼한총고가 ‘두루기’와 ‘두로’ 사이의 음의 유사성에 주목한 것이라면, 위의 변진별고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인용하여 거제도에 가야계 지명을 가진 ‘가라산’이 있고, ‘가라산’이 일본 ‘대마도’와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점³⁵⁾을 들어 ‘독로국=거제도’라고 단정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약용은 독로국을 거제도에 비정하였는데, 그 핵심 논거는 첫째, 거제의 옛 이름인 ‘상군’과 ‘독로국’ 사이의 음상사, 둘째, 일본 대마도와 가장 가깝다는 거제도의 지리적 위치였다.

정약용의 ‘독로국=거제도설’은 이후 연구자에게 강한 영향

33) 최세진의 『訓蒙字會』에 따르면 ‘瀆’은 ‘두’로도 발음된다고 한다(백승충, 「앞의 논문」, 2002, p.19).

34) 『疆域考』 권2 弁辰別考, “瀆盧者 巨濟也[已見前] … 瀆盧南與倭接 恐非他邑也 [巨濟有加羅山 輿覽云 望對馬島最近].”

3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2 巨濟縣 山川條.

을 끼쳤는데, 그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채호는 “瀆盧는 茶山이, 巨濟의 古號 裳郡이니 ‘裳’은 俗語에 ‘두룽이’니, 瀆盧는 두룽이의 음이니, 今 巨濟라 하니 대개 비슷하다.”고 했고,³⁶⁾ 정인보 또한 “瀆盧는 ‘두루내’로 一盧字를 ‘루내’의 兼用으로 써 놓은 것이니 두루는 裳의 古義라 (茶山 丁氏說) 곧 裳郡이니 지금 巨濟이다.”고 하여³⁷⁾ 정약용의 설을 비판없이 받아들였다.

일본인 학자 鮎貝房之進은 독로국을 ‘경상우도’ 거제에 비정하고 근거로 정약용의 설을 인용하여 거제도의 옛 명칭인 ‘상군’을 들었다.³⁸⁾ 末松保和 또한, “독로국의 소재에 대해서는 종래 의논이 있는 바인데, 나는 옛 『대한강역고』의 저자 정다산이 수창(首唱)하고, 鮎貝 씨가 찬동한 거제도설에 가담한다.”고 하여 정약용의 ‘독로국=거제도설’을 지지하였다.³⁹⁾

한편 末松保和는 A-②를 분석할 때, 이른바 ‘대방군에서 왜로의 항로’ 기사(A-③)를 그 도구로 삼아서 주목된다. 이른바 ‘임나일본부설(=남한경영론)’의 완성자⁴⁰⁾로 더욱 유명한 末松保和는 A-③에서 ‘그 북안인 구야한국’에 주목하고, 이 부분을 ‘북안’과 ‘구야한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기서의 ‘북안’을 ‘한국의 북안’으로도, 혹은 ‘왜국의 북안’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자’라고 규정하면서

36) 申采浩, 「前後三韓考」『丹齋 申采浩 全集 (中)』(改訂版),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서울, 螢雪出版社, 1987, p.94.

37) 鄭寅普, 『朝鮮史研究 上』(舊園 鄭寅普全集 3),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3, p.113.

38) 鮎貝房之進, 『雜攷』7(上),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7, p.54.

39)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增訂版), 東京, 吉川弘文館, 1956, p.66.

40) 金泰植, 『加耶聯盟史』, 서울, 一潮閣, 1993, p.3. 白承忠, 「加耶의 地域聯盟史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p.4.

도 그는 이를 ‘왜국의 북안’⁴¹⁾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구야한국이 왜인의 거유지(據有地)였음’을 들고 있다. 그는 또한 ‘구야한국’을 설명하면서, ‘구야한국’은 『삼국지』에 보이는 ‘변진구야국’이며, ‘변진구야국’은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임나가라’에 해당한다고 하고 이를 지금의 ‘부산·김해’로 비정하면서 왜인이 점거하여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였다.⁴²⁾

이상과 같이 末松保和는 A-②와 A-③를 결부시켜 ‘독로국’ 위치비정에 크게 참고했는데, ‘구야한국(부산·김해)’이 왜의 속령⁴³⁾인 셈이므로 결국 A-②의 왜와 접했다는 ‘독로국’의 위치를 부산(동래)지역에 비정할 수는 없었고, 부산·김해지역과 연결한 곳인 거제도에서 구했던 것이다.⁴⁴⁾

이상에서 ‘독로국=거제도설’을 살펴보았다. 이 설은 후술할 바와 같이 1990년대에 들어서서 심봉근에 의하여 다시 제기되기 전까지는 논리적으로 전혀 진전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 기간 중에 ‘독로국=동래설’을 제기한 연구자들에 의하여

41) 末松保和의 서술형태를 보면, ‘왜국의 북안’을 왜국의 북쪽 해안, 즉 왜국의 동서남북 해안 중에서 북쪽해안으로 해석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여기서 그가 완성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단편을 확인할 수 있다.

42) 末松保和, 『앞의 책』, 1956, pp.66-67.

43) 末松保和는 “3세기 중엽 이미 弁辰狗邪國, 즉 반도의 동남부는 任那加羅의 地를 據有했던 倭人은 그 處를 韓地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활동의 策源地로 함과 동시에, 한편 樂浪·帶方 통고항로의 중계지로 했다. 그 후 약 100년인 313년에 낙랑·대방이 멸망할 때까지, 거유시설의 강화확충했던 것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여 지금의 부산·김해지역을 왜의 속령으로 간주하였다(末松保和, 『위의 책』, p.67).

44) 末松保和는 별도의 논증을 통하여 ‘독로국=거제도설’을 보강하기도 하였다. 정약용과는 그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 거제도는 오래 전부터 한 소국을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상정한 다음, B-①을 분석하여, 신라시기 거제군의 한 영현인 賈珍伊(溟珍縣)에 독로의 흔적이 있다고 하였다. 즉 ‘囊’자가 tu-ru-ki로 읽히는 외에, 賈珍伊에서 賈의 의미는 고찰할 수는 없지만, 珍伊는 확실히 tar-i, tor-i, tur-i라고 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末松保和, 『위의 책』, pp.66-67).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되었는데, 아래에서는 ‘독로국=동래설’의 성립과 ‘독로국=동래설’이 ‘독로국=거제도설’을 어떻게 비판해 왔으며, 이의 대안으로 ‘독로국=동래설’이 어떻게 자리잡게 되었는지, 그 연구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독로국=동래설

(1) ‘독로국=거제도설’ 비판

‘독로국=거제도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연구자는 이병도였다.⁴⁵⁾ 그는 정약용의 거제도설과 吉田東伍의 동래설⁴⁶⁾을 소개하면서, 양 설 모두 이치가 있지만, 吉田東伍의 동래설을 좇는다고 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A-②의 독로국과 왜의 접계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최단거리 문제에 주목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약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가라산’이 ‘대마도를 바라보기에 가장 가깝다.’고 한 점을 인용하여 ‘독로국=거제도설’ 논증의 한 방편으로 삼았다. 이병도는 정약용의 논증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독로국=거제도설’을 비판하였다. 그 역시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현조에 인용되어 있는 신숙주의 정원루기(靖遠樓記)의 ‘동래의 옛 현은 땅이 바닷가에 있고 대마도와 가장 가까워 연기와 불을 서로 바라보는데, 실제로 왜인이 왕래하는 요충지다.’⁴⁷⁾는 기록을 참고하면서 “대마도와의 최근거리로 말하면 거제도보다

45) 李丙燾, 「三韓問題의 新考察-辰國及三韓考-」 『震檀學報』 7, 京城, 震檀學會 1937, pp.140-141.

46) 吉田東伍, 『앞의 책』, 1977, pp.142-144.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4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東萊縣 樓亭條.

도 동래부산편이 더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 거제현조의 기사만으로는 ‘독로국=거제도설’이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또한 ‘독로국=거제도설’의 유력한 근거 중 하나였던 명칭의 비교에 있어서도 “상군과 독로와의 비정보다는 동래와 독로와의 그것이 훨씬 온당할 듯하다.”고 추정하여 연구자 중에서 ‘독로’와 ‘동래’의 음운적 유사성에 최초로 주목하였다.

‘독로국=거제도설’을 비판한 다음 연구자는 정중환이었다. 그는 정약용의 ‘독로국=거제도설’을 논평하면서, 우선 “신라가 상군이라 하였으니 이는 두루기의 훈역으로 생각하여 두루기는 독로와 소리가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거제도가 일본과의 거리도 가장 가까운 곳임에는 틀림없다.”고 하여 정약용의 ‘독로국=거제도설’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설에 내포되어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⁴⁸⁾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삼국지』는 당시 한일 간의 교통요충을 낙동강 하구인 ‘구야한국(김해)’과 부산지역, 웅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⁴⁹⁾ 거제도는 교통의 요충이 될 수 없다.⁵⁰⁾ 이처럼 당시 한

48) 丁仲煥, 『위의 책』, 2000, pp.313-314.

49) 정중환은 당시의 해상교통의 요충은 부산 앞바다였음이 명백하고, 왜인들은 北九州 博多港 등에서 출발하면 壱岐島에 도착한 다음, 壱岐島에서 對馬島로, 對馬島에서 지금의 한일간의 항로와 같이 부산으로 나와 혹은 하구를 통하고 혹은 웅천에 상륙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야한국인 김해와 거래하고 다시 서로 꺾어 남해를 거쳐 서해로 진출하여 연해를 따라 낙랑 또는 대방까지 갔을 것이며, 돌아오는 길도 같은 경로를 취하였을 가능성을 부연하였다(丁仲煥, 『위의 책』, p.313).

50) 거제도는 다만 임진왜란 때 아군과 왜군이 함께 통로를 삼았던 見乃梁 남단에 가로놓여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하여, ‘독로국=거제도설’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함을 논하였다(丁仲煥, 『위의 책』, p.313).

일간의 교통요충도 아닌 곳을 들어 하필 ‘왜와 경계를 접하였다(與倭交界)’란 말을 썼을 리 없다. 적어도 “與倭交界”란 말을 쓸 수 있는 독로국은 상고 한일교섭상에 특수한 위치를 점하는 곳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거제도의 경우 아직 물자생산 면에서나 문명전달 면에서 당시 사회의 교통요충이 될 만한 여건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둘째, 신라 문무왕이 ‘상군’을 설치할 때 ‘독로국’의 원어인 ‘두루기’를 훈역(訓譯)하여 ‘상군’이라 한 것인지 혹은 다른 의미에서 ‘상군’이라 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뿐만 아니라, 또 ‘독로’란 말이 ‘두루기’의 음역(音譯)된 말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정중환은 이상의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며 ‘독로국=거제도설’에 대하여 회의를 품었다. 특히 두 번째 의문의 경우, 향후 연구자들에게 ‘독로국’과 ‘상군’의 음운 비교에서 선후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숙제를 부과한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 후 천관우의 비판이 이어졌다. 그는 우선 ‘독로국=동래설’에 찬동을 표시하면서⁵¹⁾ 사료 A-②의 ‘그 독로국은 왜와 접계하고 있다.’는 기록은 동래설과 거제설에 공통되는 논거라고 하였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왜와 최단거리라는 조건은 거제도와 동래 두 곳에 모두 충족되며, 또한 “倭人往來의 要衝”이나, “本國人으로 일본에 왕래하는 자는 반드시 여기서……對馬州로 향한다.”는 것은 실지의 해상교통에 있어서도 두 곳이 모두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하였다.⁵²⁾ 이 점에 있어서는 이병도가 한일간의 최단거리는 동래라고 단정

51) 千寬宇, 『앞의 책』, 1991, p.65.

52) 千寬宇, 『위의 책』, p.65.

한 것에 비하면,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독로국=거제설’의 유력한 논거였던 ‘독로’와 ‘상’의 음상사를 거론하면서도, ‘상군’은 문무왕때 처음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취락형성 상태는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했으며, ‘가라산’이 거제도가 가야계 거주지역이었음을 나타낸다는 것 역시, 독로국=동래설의 논거와 비교했을 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언급하였다.⁵³⁾

(2) ‘독로국=동래설’의 성립

‘독로국=동래설’을 최초로 언급한 자는 일본인 학자 吉田東伍였다. 그는 1893년에 발간된 『日韓古史斷』에서 앞에 언급한 사료 A-②를 분석하면서, “그 독로진(瀆盧津)[본서 「위지」에서 독로국이라 함은 곧 임나나라(任那多羅)라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생각건대 잘못이다. 그 까닭은 다라는 산간지역으로 왜와 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지금 동래부 다대포가 아닐까]은 남으로 왜와 접한다.”고 하여⁵⁴⁾ 『삼국지』 찬자의 서술을 두찬(杜撰)이라 비판하고, 독로국을 당시 동래부에 영속되어 있던 다대포로 추정하였다.⁵⁵⁾ 그러나 그가 자의적으로

53) 천관우는 金正浩의 『大東輿地圖』에 東萊府 東에 ‘古國基’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면 독로국의 위치비정에 있어서 거제의 가라산보다는 훨씬 유력한 논거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千寬宇, 『위의 책』, p.66).

54) 吉田東伍, 『앞의 책』, 1977, p.142.

55) 吉田東伍가 독로국을 독로진이라 하고 이를 다대포에 비정한 까닭을 아마도 『日本書紀』에 몇 차례 보이는 ‘多多羅(=踏鞴津 : 대개 부산 다대포로 비정됨)’의 존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한 견해가 있는데(백승충, 「앞의 논문」, 2002, p.19), 필자도 그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吉田東伍 또한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瀆盧’를 ‘두로’ 또는 ‘도로’로 읽고, 이와 ‘다다라’ 사이의 음상사에 주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독로국을 ‘변진독라(辨辰瀆羅 : 지금의 합천)’⁵⁶⁾와 ‘독로진(동래부 다대포)’으로 구별한 점 등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로부터 잘못이라고 비판을 받아왔지만,⁵⁷⁾ 종래 정약용과 달리 ‘독로국’을 ‘동래부 다대포’에 처음으로 비정한 점은 자못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⁵⁸⁾

한편 那珂通世는 독로국의 위치비정에 있어서 “독로국은 ‘與倭接界’라고 했으니, 지금의 동래부 혹은 거제부에 있었던 나라일 것이다. 『日韓古史斷』에서 ‘아마도 지금의 동래부 다대포가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여⁵⁹⁾ 정약용의 거제설과 吉田東伍의 동래설을 나란히 소개하였다. 그런데 그 문맥을 살펴보면 정중환이 이미 말했듯이, 那珂通世는 정약용의 거제도설 보다는 吉田東伍의 동래설에 더욱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⁶⁰⁾ 즉 ‘독로국=동래설’에 그가 가담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인 연구자들의 단편적인 언급을 시초로 하여 ‘독로국=동래설’은 일단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吉田東伍로 대표되는 일본인 연구자들이 제기한 것은 ‘독로국=동래설’이라기보다는 ‘독로국=다대포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독

56) 주 21) 참조.

57) 정중환은 吉田東伍가 독로국을 독로진과 독라국으로 나누어 본 것은 원전인 『삼국지』 변진전은 물론이고 다른 책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착각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丁仲煥, 『앞의 책』, 2000, p.312). 백승충 또한 吉田東伍가 ‘독로국’을 언급하면서 함께 거명한 ‘瀆盧津’과 ‘辨辰瀆羅’는 사료상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정체 불명의 조작된 지명으로서 애초부터 논거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백승충, 『앞의 논문』, 2002, p.19).

58) 丁仲煥, 『위의 책』, p.312. 백승충, 『위의 논문』, p.19.

59) 那珂通世, 「朝鮮古史考-第5章 三韓考」『史學雜誌』, 富山房, 1895, p.41.

60) 丁仲煥, 『앞의 책』, 2000, p.312.

로국=동래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B-② 동래군(東萊郡)은 본래 거칠산군(居漆山郡)인데, 경덕왕(景德王)이 개명(改名)하여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 영현(領縣)이 둘이다. 동평현(東平縣)은 본래 대증현(大甌縣)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여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 기장현(機張縣)은 본래 갑화량곡현(甲火良谷縣)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여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⁶¹⁾

처음으로 '독로국=동래설'을 주장한 연구자는 이병도였다.⁶²⁾ 그가 '독로국'을 지금의 '동래'로 비정한 근거는 『삼국사기』 지리지였다. 즉 사료 B-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래 신라의 거칠산군이 경덕왕 때 동래로 개명된 것'이었는데, 그는 이를, "실상은 옛 이름 독로를 아명화(雅名化)하여 복구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여 사료 A-①과 A-②의 '독로국'과 위에 제시한 사료 B-②의 '동래군' 사이의 음상사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그 방증으로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옛 장산국(莨山國)[혹은 내산국(萊山國)이라고 한다]인데, 신라가 그를 취하여 거칠산군을 설치하였다.'⁶³⁾는 기록을 들고, "동래의 옛 국명으로 '장산국' 혹은 '내산국'이 전하나 '장산'과 '내산'의 이름은 다 '독로국'에 대한 (후세의) 별칭인 듯하다."고 하였다. '장산'·'내산'이 과연 후세의 별칭인지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그는 지금의 '동래지역'을 염두에 두고 "그곳이 옛 변진의 한 소국이었던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고 하여, '독로국'

61) 『三國史記』 권34 雜志3 地理1 東萊郡條.

62) 李丙燾, 「앞의 논문」, 1937, p.141.

6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東萊縣 建置沿革條.

의 위치를 동래에서 찾고자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결국 그가 처음으로 ‘독로국=동래설’을 제기한 셈이다.

본격적으로 ‘독로국=동래설’을 주장한 연구자는 정중환이었다.⁶⁴⁾ 그는 A-②의 ‘독로국’의 위치를 조선시대 동래부의 치소였던 동래읍(지금의 부산시 동래구)에 비정하였다. 그는 상고시대의 한일관계를 염두에 두고, 동래의 지세와 지형·유적·유물과 문헌사료를 통해 볼 때, 지금의 동래가 ‘독로국’의 위치로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B-②의 ‘거칠산군’이 A-①·A-②의 ‘독로국’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⁶⁵⁾ 결국 ‘독로국=거칠산군=동래’로 정리될 수 있었는데, 그의 ‘독로국=동래설’의 논거⁶⁶⁾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세론상으로 동래지방은 해변에 면할 뿐만 아니라 수영강을 끼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에는 동래까지 배를 운행하기가 자유스러웠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동래의 입지는 한·왜 통교의 요충지로서 가장 좋은 항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독로국’의 위치로 비정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둘째, 신라 경덕왕대 군명을 거칠산에서 동래로 고친 것은 근거가 있다. 음역을 하든 훈역을 하든 거칠산으로부터 동래란 말은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동래란 말은 거칠산으로부터 구할 수는 없는데, 이를 ‘독로국’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독로’의 ‘盧’는 ‘로’·‘내’·‘나’로서 다같이 ‘양(壤)’이므로, ‘독로’의 뜻은 ‘독의 나라’가 된다. 동래라는 지명은 ‘독로’를 음역한 ‘독내’를 ‘동내’ 또는 ‘동래’라고 한 데서 나왔으며 이에 대한 미칭으로 동래(東萊)를 쓰게 된 것이다.

64) 丁仲煥, 『앞의 책』, 2000, pp.315-316.

65) 丁仲煥, 『위의 책』, p.319.

66) 丁仲煥, 『위의 책』, pp.320-321.

셋째, 동래에서는 선사시대, 청동기시대, 고분시대 내지 신라시대에 걸친 유적과 유물이 널리 해외로 알려질 만큼 큰 규모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넷째, 『삼국지』에 ‘나라에서는 철이 나는데, 한·예·왜 모두 와서 사 간다.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철로 이루어져서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으며, 또 두 군에도 공급하였다.’⁶⁷⁾는 기록이 있는데, 동래에서 제철시설이 발견되고 복천동 고분에서 철정(鐵錠)이 다수 출토되었음을 통해 볼 때, 이곳이 상고 남방 해상교역의 중심지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다섯째, 동래를 중심으로 동평현지(東平縣址)인 당감동 패총지가 있던 전포동과 다대포 등 일련의 항만지대가 상고 ‘독로국’의 영역으로 신라에 완전 통합되기까지 해상의 교역중심지로 활약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중환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독로국’의 위치를 동래에 비정하였다. 그의 ‘독로국=동래설’은 이 문제에 대한 후속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현재까지 일부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중환의 설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인데,⁶⁸⁾ 아래에서는 ‘독로국=동래설’ 입장에 선 연구 추이

67) 『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韓條.

68) ‘독로국=동래설’의 입장에서 선 후속연구들을 일별해보면, 鄭澄源,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부산의 역사』, 부산, 부산시, 1978, p.16. 金泰植, 『加耶聯盟史』, 서울, 一潮閣, 1993, p.78. 朱甫暎, 「4~5세기 釜山地域의 政治的 向方」 『가야사 복원을 위한 복천동고분군의 재조명』, 제1회 부산광역시립복천박물관 학술발표대회, 부산광역시립복천박물관, 1997, pp.76-77. 이원균, 『부산의 역사-선사시대에서 개항전까지-』, 부산, 늘함께, 2000, pp.31-32. 선석열, 「가야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港都釜山』18, 부산,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2, p.285 및 pp.325-326. 이명식, 「辰·弁韓에서 新羅·加耶로」 『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2002, p.208. 정용숙,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를 살펴보고자 한다.

천관우는 이병도와 정중환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독로국을 “거칠산국인 동래지역으로 보는 설에 찬동하는 바이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정중환의 연구를 거론하면서, “동래라는 명칭이 비록 경덕왕대의 한문식표기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음이 독로와 매우 유사한 것이 주목된다.”고 하여⁶⁹⁾ 정중환의 ‘동래의 독로국 유래설’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는 정중환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칠산(居柒山)’과 ‘동래(東萊)’ 사이에 공통적으로 ‘거칠다’는 뜻이 있음에 주목하기도 했는데,⁷⁰⁾ 이는 문헌적 측면에서 ‘독로국=동래설’의 입증 가능성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생각한다.

김정학은 “독로국(瀆盧國)의 ‘瀆’은 tok(독), ‘盧’는 옛 지명에서 nae(내)의 표기로 썼다. 이를테면 진한의 ‘사로국(斯盧國)’은 徐那伐(새내벌)의 표기로서 斯는 ‘새’, 盧는 ‘내’, 國은 ‘벌’의 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瀆盧는 tok-nae인 바, tok-nae는 한국어의 음운상 tong-nae로 발음된다. 그리하여 후대에는 tong-nae를 중국에서 유명한 산둥성(山東省) 지명 ‘동래(東萊)’를 차용하여 쓰게 되었다. 지금의 부산 동래이다. 삼국시대 그 지역은 동래군으로서 부산은 동래군에 포함되어 있는 항구의 이름이었다. 즉 부산을 포함한 동래군은 3세기경

행정조직과 통치구조』『港都釜山』19, 부산,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3, pp.5-6 및 p.34 등이 있다.

69) 千寬宇, 『앞의 책』, 1991, p.65. 그리고 그는 p.67에서 ‘독로’와 ‘동래’ 사이의 음상사는 취할 수 없는지, 전문적 해석이 기대된다고 하여, 향후 연구자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70) 천관우는 언어학의 연구성과(朴炳采, 「古代三國의 地名語彙考-『三國史記』地理志의 複數地名을 중심으로」『白山學報』5, 서울, 白山學會, 1968)를 수용하여, ‘居柒山’, ‘蓑山’, ‘萊山’을 비교 검토하면서 ‘蓑’과 ‘萊’ 둘다 ‘居柒(거칠.荒)’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千寬宇, 『위의 책』, p.67).

에는 ‘독로국’이었던 것이다.”고 하였다.⁷¹⁾ 그는 선행연구자들의 성과를 전제로 하고, 음운학적 추이를 첨가하여 검토한 결과 동래는 결국 3세기경의 독로국이었다고 단정하여 ‘독로국=동래설’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상에서 ‘독로국=동래설’을 주장한 연구자들의 논거를 살펴해보았다. 이 설에 의하면 음운학적·고고학적 증거 및 지형지세를 고려해 볼 때 ‘독로국’의 위치로 지금의 부산시 동래구 일대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거제도지역에서 고고학적 발굴의 진척이 있자 ‘독로국=거제도설’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독로국=동래설’의 비판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새로 제기된 ‘독로국=거제도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재비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3) ‘독로국=동래설’ 비판

‘독로국=동래설’을 비판하고 ‘독로국=거제도설’을 다시 제기한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봉근이었다.⁷²⁾ 그가 ‘독로국=동래설’을 비판하게 된 계기는 1991년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거제도의 고현성지에 대한 부분적인 발굴조사였다.⁷³⁾

그는 ‘독로국=동래설’의 유력한 근거중 하나인 ‘독로’와 ‘동

71) 金廷鶴, 『任那と日本』(日本の歴史 別卷1), 東京, 小學館, 1977, p.36 ; 『韓國上古史研究』, 서울, 범우사, 1990, p.211.

72) 沈奉謹, 「巨濟 古縣城址 연구」『石堂論叢』17, 부산,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研究院, 1991, pp.7-35.

73) 沈奉謹, 「위의 논문」, p.7 및 p.31.

래'의 음상사에 의문을 품고, 당시 언어학적 연구성과⁷⁴⁾에 힘입어 경덕왕이 고유지명을 한문식으로 개명하던 8세기 중엽 무렵 '瀆'은 '도'나 '두'로는 발음되었으나 '독'으로는 읽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그런 다음, 오늘날 '吏讀'을 '이독'이라 발음하지 않고 '이두'라고 발음하는 것을 그 방증으로 들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瀆盧國을 읽을 때, '독로국'으로 읽을 수 없고 '두로국'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거제도의 처음 군명이 '상군'인 것을 생각한다면 '독로국'은 동래보다는 거제였음이 분명하다고 단정하였다.

한편, '동래'는 '거칠산국' 또는 '내산국'이 처음부터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독로국=동래설'은 '독로국=거제도설'보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하여 '독로국=동래설'을 비판하였다.

심봉근은 이상과 같이 '독로국=거제도설'을 다시 제기하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기도 하였다.⁷⁵⁾ 당시 보수중에 있던 거제군 동헌건물인 기성관(岐城館)의 객사 상량문과 기성관의 상량문이 그것이다. 두 상량문 중에 객사 상량문에서는 '두로국의 옛 도성(瀆盧故都)'이라는 글귀가 나왔는데, 1892년(光緒 18)에 쓴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기성관 상량문에서는 '오랜 옛날 두로가 건국되었다(上古之豆盧建國)'는 구절이 나왔다고 한다. 심봉근은 이 두 문건을 통하여 후대까지 瀆盧國을 '두로국'으로 발음하고 있었던 사실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상군'의 검토에서도 '상'의 뜻은 치마인데, 정약용이

74) 金亨柱, 『國語史研究』, 부산, 東亞大學校 出版部, 1987.

75) 沈奉謹, 「앞의 논문」, 1991, p.33.

‘상’을 ‘두루기’라 하였으므로 이에 ‘두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덧붙여 양주동의 설⁷⁶⁾을 인용하여 ‘두루’, ‘도리’는 ‘상(裳)’, ‘회(回)’일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또 양주동이 예로 든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이는 ‘상’의 용례도 인용하여 자설(自說)을 보강하였다. 즉 ‘상산(裳山)은 무주(茂朱)에 있는데, 사면이 벽처럼 서서 층층히 끊어져 사람의 치마처럼 되었으므로, 상산이라 한다.’⁷⁷⁾는 구절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상의 의미는 ‘두루, 도로’라는 의미고, 瀆盧도 ‘두루, 도로’라 읽어야 하기 때문에 瀆盧의 훈(訓)이 곧 ‘상’이라 하였다.

결국 그는 문무왕때 처음 ‘상군’을 둔 것은 ‘두로국(瀆盧國)’을 한문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瀆盧는 두루다는 의미, 곧 사방이 바다로 둘러진 섬이라는 뜻이 되고 ‘상군’의 ‘상’은 이를 한문식으로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경덕왕 때의 거제는 곧 삼한시대의 ‘두로국’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4) ‘독로국=거제도설’ 재비판

비교적 최근에 ‘독로국=거제도설’을 재비판한 연구자는 백승충이었다.⁷⁸⁾ 그는 ‘독로국’의 위치비정에는 ①바다와 접해 있으면서 왜와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 ②어원적으로 ‘독로국’과 상통해야 한다. ③삼한시대의 ‘국’이 존재할 만한 유적·유물이 있어야 한다. ④김해 ‘구야국’과 정치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 ⑤철 생산과 유통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⑥교통상의 요충지로서 바다를 통해 왜 뿐만 아니라 동해

76) 梁柱東, 『增訂 古歌研究』, 서울, 一潮閣, 1965, p.732.

77) 『世宗實錄』 권151 地理志 全羅道條.

78) 백승충, 「앞의 논문」, 2002, pp.15-24.

안 쪽으로 진한·예와도 잘 통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여섯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중요도의 경중을 떠나 이들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독로국=거제도설’은 위의 조건 들 중에서 ①과 ②는 만족시킬 수 있으나, 나머지 조건은 전혀 만족시킬 수 없고, 현재로서는 ‘독로국=동래설’만이 이를 충족시킨다고 하였다.

그는 음상사로서 고증한 ‘독로국=거제도설’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근거가 되고 있는 ‘두루-도로’의 출현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군’이라는 지명이 붙여진 유래를 양주동, 심봉근 등과 시각을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즉 거제군의 옛 지명은 잘 알 수 없으나, ‘두루-도로’의 훈차(訓借)인 ‘상군’의 ‘상’은 ‘독로’와는 무관하게 문무왕대에 처음으로 붙여진 것인데, ‘치마’를 뜻하는 우리말 ‘두루기’의 한자어인 ‘상’이 붙여진 것은 거제군의 지형을 본 딴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즉 거제군은 섬으로서 사방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치마를 두른 모습과 흡사하여 그 뜻을 충족시키는 ‘상’이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군’과 ‘독로국’의 훈차보다는 거제도의 지형지세에 따라 ‘상군’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상군’의 설치를 언급하면서,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군’이란 지형지세를 본뜬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것이었다.

백승충은 이상과 같이 다시 제기된 ‘독로국=거제도설’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입지조건, 음차(音借)·훈차, 그리고 삼한 시대의 유적분포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온천천과 수

영만을 끼고 있고 옛 동래부의 치소가 있었던 지금의 부산 동래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음차로서만 ‘독로국’과 ‘동래’를 관련짓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이 철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임을 감안해 보면, ‘독로’가 가진 뜻으로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즉 정중환의 주장처럼 ‘독로국’의 ‘독로’를 ‘강을 끼고 있는 땅(나라)’으로 볼 수도 있으나,⁷⁹⁾ 달리 해석해보면, ‘독’은 물(水)과 관련이 깊고 ‘로’는 ‘화로’로서 ‘불(火)’과 상통하여 역시 철 생산과 관련이 깊은 국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선행연구자들의 성과를 종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삼한시대 ‘독로국의 위치비정’ 문제의 연구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처음 거제도설에서 출발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동래설이 점점 설득력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최근 거제도설이 다시 제기되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삼국시대 ‘부산지역 정치체’의 신라병합시기

삼국시대 부산지역의 역사를 알려주는 기록 또한 삼한시대와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삼한시대 부산지역은 거칠산국, 장산국 또는 내산국 등의 명칭으로 불렸음은 이미 앞장에서 언급하였다. 문제는 “이들 소국명을 표방하면서 활동하던 ‘부산

79) 丁仲煥, 『앞의 책』, 2000, p.320.

지역 정치체'가 언제 신라에게 병합되었는가?"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에 따라 그 병합시기와 관련한 견해가 다른데, 그 시각에 따라 부산지역사의 시간적 범주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삼한시대 거칠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시기는 고대 부산지역사의 시기구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시기를 자리매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부산 지역 정치체'의 신라병합시기를 중심으로 종래의 연구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C-① 거도(居道)는 그 족(族)과 성(姓)을 잃어버려 어느 곳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에게 출사(出仕)하여 간(干)이 되었다. 그 때, 우시산국(于尸山國)·거칠산국(居柒山國)이 이웃 경계에 끼어 있어 자못 나라의 근심이 되었다. 거도가 변방의 관리가 되어 속으로 병합할 생각을 가졌다. 매년 한 번씩 말들을 장토(張吐)의 들판에 모아놓고 군사들로 하여금 타고 치달리게 함으로써 놀이와 풍류로 삼았다. 그때 사람들이 일컫기를 '마숙(馬叔)'이라고 하였다. 두 나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에 숙달됨으로써 신라에서 늘 있는 일이라 하여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에 병마를 일으켜 그들을 불의에 공격함으로써 두 나라를 멸망시켰다.⁸⁰⁾

C-② 이사부(異斯夫)[혹은 태종(苔宗)이라고도 한다]는 성이 김씨이고 나물왕(奈勿王)의 4세손이다. 지도로왕(智度路王) 때에 바닷가 변경의 관리가 되어 거도의 술책을 물려받아 마희(馬戲)로써 가야(加耶)[혹은 가라(加羅)라고도 한다]를 속여 이를 쳐서 빼앗았다.⁸¹⁾

80) 『三國史記』 권44 列傳4 居道傳.

사료 C-①은 신라 탈해이사금(재위 57~80) 때 제법 그 국력이 강하여 신라를 위협할 정도였다고 추정되는 ‘우시산국’⁸²⁾과 ‘거칠산국’⁸³⁾을 지방관인 거도가 기묘한 계책으로 병탄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즉 신라가 주변의 소국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면서 고대국가로 성장해가는 모습의 일면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탈해이사금 재위시⁸⁴⁾인 1세기대에 과연 신라가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을 멸망시킬 수 있었을 만큼 정복국가로서의 면모를 띠고 있었는지의 여부다. 때문에 C-①을 분석할 때, 그 연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견해와 신라가 양국을 병합했다는 사실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연대는 후대로 내려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아예 기사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⁸⁵⁾도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이 종래의 다양한 연구경향을

81) 『三國史記』 권44 列傳4 異斯夫傳.

82) 후술할 바와 같이 우시산국을 지금의 부산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지금의 울산지역으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시산국=동래설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 백승충,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정치집단과 그 성격-弁辰瀆盧國을 중심으로-」 『港都釜山』18,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2, pp.27-28.

83) 거칠산국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동래군을 ‘본래 거칠산군’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동래구 일대다. 한편, 거도전에는 일종의 설화적인 내용이 들어 있고, 거도전의 연대가 탈해왕 대라고 한다면 사로국의 국경이 동래에까지 미쳤을 리가 없기 때문에 거칠산국은 또 하나의 소국인 사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나라일 것으로 보고(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2. p.84), 거칠산국을 지금의 부산으로 비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84) 『三國史記』 列傳에는 이 나라가 신라에 복속된 해를 명기하고 있지 않는데 비해, 『三國史節要』 이후 『東國通鑑』, 『東史綱目』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복속시기를 탈해왕 23년조로 기록하고 있다(鄭求福 외, 『譯註 三國史記 4 주석편(하)』 (修訂版),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1, p.696).

85) 경주세력은 탈해대까지 정복활동을 벌인 일이 없으므로, 탈해 때 정복활동이

전제로 하고, 기존연구들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1~2세기 병합설

현재 이 시기의 사실을 전하고 있는 사서로는 『삼국지』, 『삼국사기』가 있다. 양 사서에서 부산지역으로 비정되는 소국명은 전자의 ‘독로국’과 후자의 ‘거칠산국’이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때로는 『삼국지』의 기록을 더욱 신뢰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 시기에 ‘거칠산국’이 신라에 병합되었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삼국사기』의 초기기록을 믿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셈이다(공정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시기를 언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코 긍정론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장 이른 이 시기에 ‘거칠산국’이 신라에 병합되었던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신라는 ‘거칠산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거나, ‘거칠산군’은 ‘거칠산국’때부터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서 있는 연구 성과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정중환은 C-①을 세밀히 분석하였는데, 그는 일단 거도의 출자를 동래지역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거도에게 병탄된

있을 듯한 C-①의 기사를 취신할 수 없다는 견해(千寬宇, 「三韓放 第3部-三韓의 國家形成-」 『古朝鮮史 三韓史研究』, 서울, - 潮閣, 1989, pp.289-292), 또 C-①은 C-②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C-①을 탈해이사금때의 사실로 볼 수 없고, 또 C-②의 내용이 신라본기에는 없고 열전에만 보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견해(李宇泰, 「신라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7』(삼국의 정치와 사회Ⅲ-신라-가야), 국사편찬위원회, 1997, p.43) 등이 있다.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은 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서로 인접했을 것으로 보고, ‘우시산국’을 지금의 부산지역에 비정하기도 하였다.⁸⁶⁾

그는 신라가 ‘거칠산국’을 병합한 시기를 대체로 1세기말~2세기초로 보고 있다.⁸⁷⁾ 지마이사금 때, ‘大甌山城을 쌓았다.’⁸⁸⁾는 기사에 주목하고, 대증산성과 B-②의 동래군의 영현으로 언급된 대증현을 동일시 하였다. 그런 다음, 『삼국사기』의 초기기년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C-①의 사건을 탈해이사금대의 사실로 보지 않고, 대증산성 축성기사를 더욱 중시하여, 대체로 파사이사금(재위 80~112) 혹은 지마이사금(재위 112~134) 때인 1세기말이나 2세기초에는 부산지역이 신라의 영역내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신라에 병합된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의 문화권은 그 지연적 관계에서 가야권에 속한다고 하였다. 즉 본래 변한(가야)에 소속한 곳이었기 때문에 신라에게 병합된 뒤에도 그들의 문화권은 오래도록 고유의 형태로 존속되었을 것⁸⁹⁾이라는 의미다. 결국 정치권과 문화권을 구별한 셈인데, 어쨌든 ‘부산 지역 정치체’가 신라에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칠산국’ 시절부터의 독자성을 신라가 묵인한 것으로 보았다.

86) 지금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菴山이 있다. 장산은 『新增東國輿地勝覽』 東萊縣 山川條에 上山으로 나오므로 장산은 장산의 별칭인 셈이다. 정중환은 于尸山國에서 ‘于尸’를 ‘우’으로 읽고 于尸山을 장산의 뜻으로 보아 장산 주변에 소국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다음, 우시산국을 장산국 또는 장산국으로 비정하여 동래 일대로 본다고 하였다(丁仲煥, 『瀆盧國考』 『白山學報』 8, 서울, 白山學會, 1970 ; 『加羅史研究』, 서울, 혜안, 2000, pp.318-319 ; 『삼국시대의 부산』 『釜山市史』1, 부산,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1989, p.467).

87) 丁仲煥, 『위의 책』, p.316.

88)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祇摩尼師今 10년조.

89) 丁仲煥, 『위의 책』, 2000, p.319.

정정원은 C-①의 사건 시기가 탈해이사금 때인 만큼 ‘거칠산국’의 신라병합시기를 1세기 후반 무렵으로 보고,⁹⁰⁾ 이때 지금의 동래구 일대가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갔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당시 신라가 동래지방을 병합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지역은 자주적인 생활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정중환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정원은 1세기에 거칠산국이 신라에 병합되었는지 여부보다는 어쨌든 부산지방이 1세기 무렵부터 신라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지게 되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결국 C-①을 부산지역의 지정학적 입지로 인하여 일찍부터 팽창일로에 있던 신라와 접촉한 사실의 반영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셈이다.

2. 3~4세기 병합설

이 설은 고대 부산지역이 신라에게 병합되었음을 알려주는 C-①의 기사를 분석할 때, 기년을 기록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부정하면서도, 기록의 사실성은 인정하는 입장에 선 연구자들의 견해가 그 대중을 이루는데, 선석열과 후보돈의 견해가 주목된다.⁹¹⁾

선석열은 우선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보이는 신라의 소국 정복기록을 검토하였다. 이를 연대순으로 보면 소국의 정복방

90) 鄭澄源,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부산의 역사』, 부산, 부산시, 1978, p.14.

91) 고고자료의 검토를 통해 볼 때, 성주, 창녕, 부산지방은 4세기경까지는 가야연맹에 속해 있다가 신라에 자발적으로 투항한 것으로 본 견해(김태식, 「後期 加耶聯盟體의 成立과 發展」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 해안, 2001, p.195)도 있다.

향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데, C-①의 경우와 같이 ‘우시산국’-‘거칠산국’, ‘굴아화촌(울산)’ 등 동남 해안 방면이 가장 먼저 정복되었고, 다음 동해안 방면, 낙동강 중류 방면, 남해안 방면, 경북 내륙 방면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다.⁹²⁾ 그는 이들 초기기록을 분석할 때, 기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국정복기사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C-①의 경우처럼 1세기 후반에 울산-동래 지역을 복속시켰는데도 2세기 초 전후에 다시 울산지역의 ‘굴아화촌’을 복속시켰다는 기사⁹³⁾와 모순관계를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소국정복기사를 검토할 때는 초기기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년 문제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신라 상고왕통의 기년을 수정론적인 방법으로 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⁹⁴⁾ 그의 연구에 의하면, 사로국이 진한지역의 소국들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은 3세기 후반부터이므로 C-①의 ‘거칠산국’이 신라에 복속되는 시기는 그보다 후기에 일어난 사실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⁹⁵⁾ 그러나 탈해이사금대 신라가 ‘거칠산국’을 정복하였더라도 계속적으로 장악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점은 정중환, 정정원 등 이전 연구자들의 견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그의 연구 중 특이한 것은, 당시의 탈해는 ‘금관국’ 수로왕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거칠산국’을 장악하였더라도 보다 강력한 ‘금관국’의 반격에 밀려 일시적으로 진출하였다가 다시 ‘금관국’

92) 宣石悅, 「《三國史記》新羅本紀 初期記錄 問題와 新羅國家의 成立」,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p.105.

93) 『三國史記』 권34 雜誌3 臨關郡條.

94) 宣石悅, 『新羅國家 成立過程研究』, 서울, 서울, 해안, 2001, pp.130-131.

95) 申錫烈, 「가야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港都釜山』18, 부산,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2, p.289.

의 세력권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한 점이다. 이 점은 향후 연구자들에게도 검토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보돈은 ‘거칠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 논란되고 있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헌상으로 대략적인 시기는 확인 가능한데, 동래 혹은 부산지역은 늦어도 3세기 중반의 어느 시점까지 변한의 일국으로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존재하다가 이후의 어느 시기에 이르러 신라(사료)의 영역으로 편입된 것이 확실하다고 하였다. C-①의 기사를 따르는 한 ‘거칠산국’, 즉 동래는 탈해이사금대에 신라에 의해 멸망되었지만, 기년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우므로 빨라도 3세기 후반 이후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이 신라에 의해 병합된 시기를 기록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보아 상당히 이른 시기에 진행되었음은 틀림없다고 하였다.⁹⁶⁾ 결국 그는 약간의 기년조정만 한다면 사실 자체는 의도적으로 윤색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외 주목되는 것으로 이원균의 견해가 있다. 그는 C-①의 기록처럼 1세기 후반기에 신라의 세력이 울산이나 동래 지방에까지 미쳤다고 하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C-①의 거도전은 거도의 휘하 군사들이 말을 이용하여 ‘거칠산국’을 병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국지』에 의하는 한 삼한 사람들은 3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말을 타고 다닐 줄 몰랐다고 하므로, 4세기 혹은 5세기 이후의 어느 시기에 있었던 기록을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⁹⁷⁾ 그리

96) 朱甫暉, 「4~5세기 釜山地域의 政治的 向方」 『가야사 복원을 위한 북천동고분군의 재조명』, 제1회 부산광역시립북천박물관 학술발표대회, 부산광역시립북천박물관, 1997, pp.83-84.

고 400년에 있었던 고구려의 남정에 주목하고, 남정의 결과가 가야 제국의 맹주격인 ‘가락국’이 차츰 쇠퇴하게 되었고, 부산 지역의 ‘거칠산국’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 신라의 남진책이 지속되었는데, 눌지마립간 때인 5세기 전반기에는 지금의 양산인 삼량주(歙良州)가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양산지역을 병합한 신라는 ‘거칠산국’에 대해서는 부단히 세력을 뻗쳐, 그 결과 5세기 중반기 이후부터 부산 지방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신라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신라는 마침내 ‘거칠산국’의 옛 터에 ‘거칠산군’을 설치하고 그 밑에 ‘대증현’과 ‘갑화량곡현’이라는 두 개의 영현을 두어 부산 지방을 통치했던 것으로 보았다.⁹⁸⁾

3. 5~6세기 병합설

5세기대부터는 고구려·백제·신라가 완전히 정립한 삼국시대로 접어든 시기로, 각각의 국가이익을 위해 합종·연횡하던 때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영남지역의 정세를 살펴보면 이미 4세기대부터 고대국가체제를 완성한 신라는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고구려의 침략이 필연적으로 점증하였는데, 신라는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써 신라는 백제 및 가야와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우호관계는 고구려의 남진을 적절히 견제하였다.⁹⁹⁾

97) 이원균, 『부산의 역사-선사시대에서 개항전까지-』, 부산, 늘함께, 2000, p.44.

98) 이원균, 『위의 책』, p.45.

가야의 경우 가락국이 신라의 영역확장 정책에 따라 점차 쇠퇴하게 되어, 마침내 그 맹주권을 새로이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가락국에 넘기게 되었다. 고령지역의 가락국은 이 시기 두각을 드러내어, 한편으로는 꾸준한 내재적 발전을 이룩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사절을 파견하는 등 그 국가적 위상을 크게 제고시켰다.¹⁰⁰⁾

이러한 상황에서 가야계 거칠산국이 마침내 신라에 병합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와서야 ‘부산지역 정치체’가 신라에 복속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록은 『삼국사기』, 『양서』, 『일본서기』 등에 보인다.

- D-① 봄 2월, 왕이 친히 국내의 주(州)·군(郡)·현(縣)을 정하였다.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했는데, 이사부(異斯夫)를 군주(軍主)로 삼았다. 군주의 이름은 이에서 비롯되었다.¹⁰¹⁾
- D-② 그 읍속에 성(城)을 일러 건모라(健牟羅)라고 한다. 그 읍(邑)이 안에 있는 것은 탁평(啄評)이라 하고, 밖에 있는 것은 읍록(邑勒)이라 하는데, 역시 중국에서 말하는 군현이다. 나라에는 6탁평과 52읍록이 있다.¹⁰²⁾
- D-③ 신라는 다시 그 상신(上臣)인 이질부례지간기(伊叱夫禮智干岐)를 보내[신라는 대신(大臣)으로 상신을 삼는다. 다른 책에서 이르기를, 이질부례지나말(伊叱夫禮知奈末)이라고도 한다], 군사 3천을 이끌고 와서 칙연 듣기를 청했다. … 이질부례지간기는 다다라(多多羅)의 들에 머물면서 삼가 돌아가지 않고 석 달을 기다렸다. 자주 칙연 듣기를 청했다. … 상신이 4개의 마

99)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3 昭知麻立干 3년(481)조.

100) 『南齊書』 권58 東南夷列傳 第39 加羅國傳.

101)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6년(505)조.

102) 『梁書』 권54 列傳48 諸夷 新羅傳.

을을 초략(抄掠)하고[금관(金官)·배벌(背伐)·안다(安多)·위타(委陀)의 네 마을이다. 다른 책에 이르기를, 다다라·수나라(須那羅)·화다(和多)·비지(費智)가 네 마을이 된다고 한다]. 인물을 다 데리고 그 본국으로 들어갔다.¹⁰³⁾

D-①은 신라가 지증왕대에 지금의 삼척지방에 실직주를 설치하고 군주를 임명했는데, 군주의 이름이 이때에 비롯되었다고 했으므로,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중국과 비슷한 지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물론 ‘군주’ 명칭의 시원은 이미 벌휴왕대에 보이기는 하지만,¹⁰⁴⁾ 대개 지증왕대의 사실로 받아들여진다.¹⁰⁵⁾ D-②는 6세기 초반 이전의 신라의 행정조직에 대하여 신라인으로부터 중국인이 듣고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D-③은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지금의 부산 다대포에 비정되고 있는 다다라의 별관에 주둔하였다가 다다라를 포함한 김해지역의 가야세력을 초략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기사는 대개 5세기~6세기 초반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기록을 살펴보면, 신라가 주·군·현을 설치한 것은 6세기 초므로 거칠산군이 설치된 것은 6세기 초를 넘을 수 없고, 신라는 거칠산국의 영현중 하나인 대증현에 소속되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다대포를 6세기 초에나 복속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시기 부산지역사를 살펴본 것이 5~6세기 병합설이다.

1960년대 부산시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釜山略史』는 낙

103)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23년(529) 4월 是月條.

104) 『三國史記』 권2 新羅本紀2 伐休尼師今 2년(185)조.

105)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상』(개정판), 서울, 을유문화사, 1996, p.47 및 p.88.

동강 이동에 있는 부산지역이 후일 신라에 복속될 때까지는 가야연맹권내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면서 가야연맹의 한 소국이었던 거칠산국이 대체로 5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북에서 남하하는 신라의 세력에 의하여 복속된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⁰⁶⁾ 그 결과 신라는 비로소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김해의 가락국과 대치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신라의 거칠산국 병합은 D-①을 근거로 들어 지증왕 이전의 사실일 것으로 보았다. 즉 거칠산국은 신라의 거칠산군으로 재편되었는데, 신라가 중국의 지방제도를 채용하여 주·군·현을 설치한 것이 505년(지증왕 6)이므로 거칠산군의 설치연대를 505년이거나 혹은 그 이후의 사실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백승충은 거칠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시기와 관련하여, C-①의 거도가 탈해이사금때 활약한 것으로 나오는데, 초기기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씨족과 성씨 및 출신지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년 비정과 출자를 추정하기에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거도는 C-②에서 보이는 바 지증왕대에 ‘변관’이 된 이사부에 앞서는 인물임은 분명하고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의 멸망 시기는 신라의 가야 평정 이전의 동남해안 진출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고학적 연구성과¹⁰⁷⁾를 원용하여 거도의 활동 시기를 5세기 중·후반으로 추정하였다.¹⁰⁸⁾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사부가 활동한 지역인데, 김해에 이웃해 있으면서 거도 때 이미 신라로 편입

106) 釜山市史編纂委員會, 『釜山略史』, 부산, 嶺南印刷所, 1965, pp.20-22.

107) 釜山大學校博物館, 『東萊福泉洞古墳群Ⅱ』(本文), 1990, pp.85-86 및 釜山直轄市立博物館, 『東萊福泉洞53號墳』, 1992, pp.92-97.

108) 백승충, 「앞의 논문」, 2002, p.28.

된 ‘거칠산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결국 ‘거칠산국’은 이웃한 우시산국과 함께 다른 가야제국보다는 이른 시기인 5세기 중반에 신라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보았다.¹⁰⁹⁾

IV. 맺음말 : 향후 연구의 과제

이상에서 문헌적 측면으로 접근했던 고대 부산지역사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심화된 연구가 요청되고 있는 주제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연구들에서 과생된 몇몇의 과제를 나열해 본 다음, 향후 연구의 전망을 언급함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할까 한다.

우선 삼한시대 ‘독로국의 위치비정’ 문제다.¹¹⁰⁾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독로국=거제도설’에 몇 개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기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음상사 문제다. ‘독로국=거제도설’의 입장에서 견지해 온 ‘두루기(裳)=두로(瀆盧)’의 성립에 대한 의문인데, ‘瀆盧’와 같이 첫음절의 ‘瀆’을 과연 ‘두’로 읽을 수 있는가가 그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瀆’자는 ‘독’으로도, ‘두’로도

109) 백승충, 「위의 논문」, pp.28-29.

110) 이 문제는 향후에도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는 ‘독로국=동래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 또한 ‘독로국=동래설’을 비판하는 논리가 매우 정연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견해의 입장에 선 연구성과가 활발히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발음되는 것은 틀림없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자전류와 사전류에도 그렇게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瀆’자의 용례가 문제다. 필자의 견식이 좁은 탓인지는 몰라도 ‘瀆’자가 첫음절인 경우 ‘두’로 발음되는 용례를 찾지 못했다. 심지어 ‘독로국=거제도설’에서 제기한 ‘讀’의 용례를 살펴보아도 첫음절의 경우 ‘두’로 읽는 것은 ‘두점(讀點)’밖에는 찾지 못했다. 그나마 ‘두점’은 ‘구두점(句讀點)’의 약어(略語)기 때문에 사실상 첫음절이 아니라 두 번째 음절이다. 즉 ‘이두(吏讀)’와 같이 첫음절 다음에 올 경우에만 ‘두’로 발음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瀆盧’의 경우 과연 ‘두로’로 읽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 점에 대하여 앞으로 전문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바다.

둘째 ‘대마도를 보기에 가장 가깝다’고 표현하고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태도 문제다. 정약용의 경우 거제도에 있는 ‘가라산’이 대마도를 바라보기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독로국’을 거제도에 비정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병도는 또한 같은 책 동래현 누정조(樓亭條)에 실려 있는 신숙주의 정원루기를 인용하여 ‘대마도와 가장 가까운 곳’은 ‘동래부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천관우는 최단거리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거제도와 동래가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현 산천조(山川條)에도 상산(上山=菴山)을 설명하면서 ‘대마도를 바라보기에 가장 가깝다.’고 하였다. 즉 세 곳이 모두 일본과 최단거리에 있다는 의미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점은 모순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신빙성 여부의 문제조차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두찬(杜撰)으

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 구절들을 살펴볼 때,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최단거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당해 지역과 대마도 사이의 최단거리로 해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추정에 일리가 있다면 이른바 최단거리 논쟁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독로국’의 경역, 국읍의 소재 등 고대 부산지역의 ‘사회구조의 해명’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앞으로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적 측면에서만 접근했을 경우, 아마도 이 문제는 거의 해명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인접학문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시점에서 요청되는 것은 고고학적 업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1970년대부터 활발한 발굴을 통하여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고학적 연구성과의 활용은 필수불가결의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제간의 학술교류는 이 문제의 해결에만 국한될 뿐만 아니라 고대 부산지역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